대한민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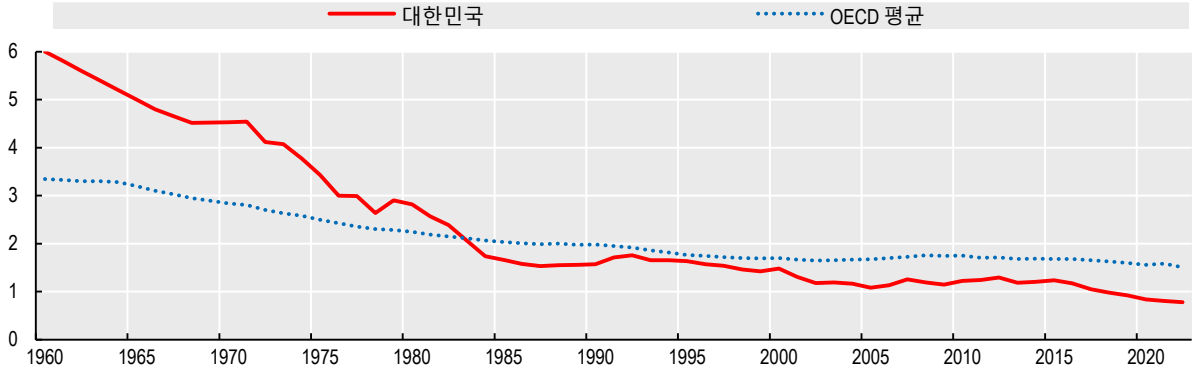
출산율 동향 집중 조명

2022 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4 만 9186 명으로 여성 1 명당 0.78 명의 자녀를 낳아 OECD 평균인 1.51 명보다 약 0.75%포인트 낮으며,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.

OECD 전체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 년부터 2002 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. 2000 년대 초반에는 소폭의 출산율 반등이 있었으나, 2008 년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 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.5 명에 도달했습니다. 하지만 OECD 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. 1960 년 여성 1 인당 6 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0 년대 후반과 1990 년대 전반에는 여성 1 인당 2 명으로 줄었으며, 2023 년에는 여성 1 인당 0.72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

그림 1.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지난 40 년간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.

15 세~49 세 여성 1 인당 자녀 수, 한국 및 OECD 평균 1960~2022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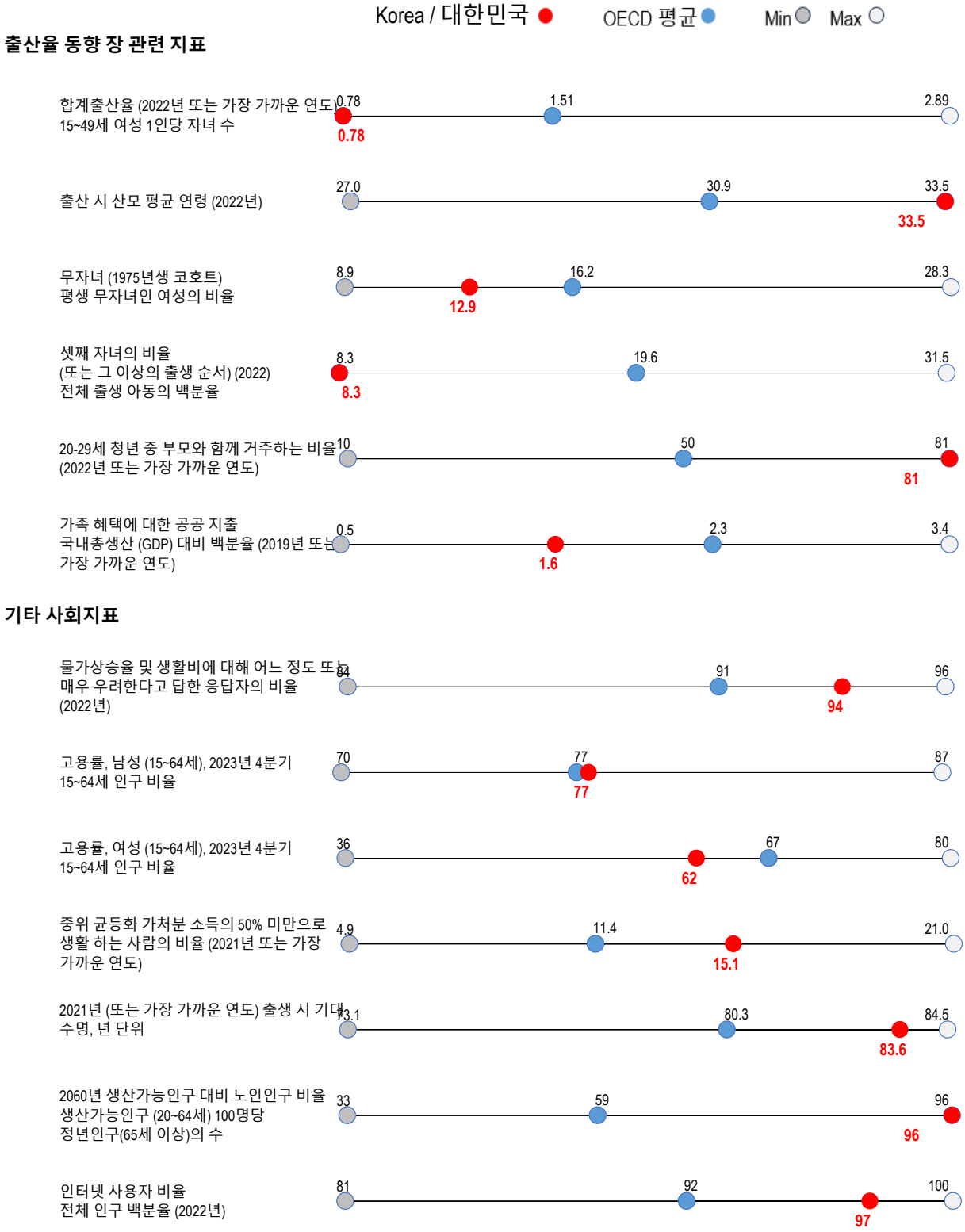
출처: 그림 1.1 OECD (2024), 한눈에 보는 사회 2024, https://stat.link/vxdlnc.

출산 선택에는 남녀 모두 고용, 실업률,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(예: 유급 육아휴직 및 육아 지원), 교육 및 주거 비용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(그림 1.7, https://stat.link/8zu7m3 및 그림 1.14 , https://stat.link/ois3k8 참조). 그러나 (경제적) 불확실성, 사회적 규범 및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많은 OECD 국가에서 노동 시장과 주택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노력이 출산 지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한국의 경우,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0 년 29.0 세에서 2022 년 33.5 세로 상승했으며,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.5 년 높습니다 (그림 1.5, https://stat.link/163n2d 참조).

합계출산율 감소는 여성이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OECD 전역에서 자녀를 가지지 않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, 그 시기와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. 한국의 경우 1955 년생 여성의 영구 무자녀 비율은 8%에서 1975 년생 여성의 경우 약 13%까지 증가했습니다 (그림 1.3, https://stat.link/mvkw3b 참조).

한국은 어떻게 비교되나요?

출산율 추세 및 기타 사회 지표 장과 관련된 지표



Source: OECD (2024), *Society at a Glance 2024*, https://stat.link/vxdlnc.
출처: OECD (2024), 한눈에 보는 사회 2024, https://stat.link/vxdlnc.